

영어 수동문의 기능

김 영 철*

〈 목 차 〉

- | | |
|---------------------|---------------|
| 1. 서론 | 3.2 타동성체계와 수동 |
| 2. 기능적 문조망(FSP)과 수동 | 3.3 주체체계와 수동 |
| 3. 체계문법에서의 수동 | 4. 결론 |
| 3.1 언어의 기능과 주어의 종류 | |

1. 서론

영어 수동문 연구는 크게 기술적 접근 방법과 기능적 접근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술적 접근 방법은 우선 수동이 능동과 관련하여 기술될 수 있는가를 묻는다. 기술될 수 있다면, 첫째 그 관련성은 무엇이며, 둘째 수동화될 수 없는 구문은 동사나 구문은 어떤 것들이며, 셋째 수동으로만 사용되는 동사나 구문은 어떤 것들인지를 묻는다. 다시 말하면,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상황이 배제된 문장(sentence in vacuo)의 분석에 관심을 집중시켜 언어보편적 특성을 규정하려고 한다.

한편 기능적 접근 방법은 언어의 의사전달 측면에 주 관심을 가지며 따라서 문장의 단계를 뛰어넘어 담화(discourse)차원의 문법이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주어진 텍스트나 발화에서 왜 무표적인 능동문 대신 유표적인 수동문이 사용되는지를 밝히기 위해 언어내적 및 언어외적 상황요소들이 모두 고려된다.

이 논문에서는 영어 수동문에 관련된 많은 연구 논문 및 저서들 가운데 그 기능에 관련된 주요 문헌을 통하여 영어 수동문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주제(theme)와 제술(rheme), 구정보와 신정보등의 주요 개념을 도입하여 맥락을 떠난 문장의 단계를 뛰어넘어 담화 차원의 문법이론을 세우고자한 프라그마학의 기능적 문조망(FSP)과 체계문법(Systemic Grammar)에서의 수동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영문학 전공)

2. 기능적 문조망(FSP)과 수동

FSP원리는 한 문장 또는 한 단락(paragraph), 더 나아가 텍스트내에서 기능적 관점에 따라 정보가 어떻게 제시되는가를 설명하는 언어 이론의 한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FSP원리는 소위 프라그마학, 특히 그 창시자인 Mathesius에 의해 소개된 것이다. 그는 프랑스인으로서 그리스어 학자였던 Weil의 방법론에 영향 받은 바 크다. Weil(1978)은 사고와 말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생각으로부터 전달하고자 하는 말 이전에 소개하는 말이 있어야 하고 이들은 또한 기지(known)와 미지(unknown)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문장의 출발점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구분지를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Mathesius는 Weil의 출발점과 기지의 것으로부터 주제(theme)를, 미지의 것으로부터 제술(rheme)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정상적 발화일 경우 주제가 제술을 선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FSP원리이다.

Mathesius의 FSP원리에 의하면 발화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쪽 부분은 맥락상 이미 알려졌거나, 또는 상황으로 알 수 있거나 판단되는 것, 즉 주제이다. 주제는 발화의 시발점과 일치하는 경향을 가지며 화자가 발화의 기초로 이용 가능하기에 심리적 주어라 하며, 다른 부분은 발화 내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단정(assertion) 부분을 내포하며 심리적 서술부(psychological predicate)라 칭한다 (Mathesius, 1975:83).

따라서 주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문두의 위치에 오는 경향이 있으며 제술은 문미 방향으로 나타난다. 발화는 청자와 관련하여 맥락상 이미 알려진 부분으로부터 알려지려고 하는 부분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주제-제술의 순서는 객관적 순서, 제술-주제의 순서는 주관적 순서라고 불린다 (Mathesius, 1983:127).

이상과 같은 Mathesius 이론을 계승 발전시킨 대표적 언어학자인 Firbas (1964, 1965, 1971)는 주제에 대한 기준을 전달의 역동성(communicative) 1) 어떤 요소들이 어느 정도의 CD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는 Firbas(1971: 136)에서 문장 내에 있는 S, NP, word, morpheme, submorpheme, segment 등의 모든 요소들이 의 미를 전달할 수 있는 한 어느 정도의 CD를 보유하고 맥락상의 독립, 의존적인 것은 전달의 목적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Firbas는 CD 이론을 합리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문장 내의 각 요소들 사이의 CD의 상대적 정도 산정 문제로 인하여 그의 이론은 상당히 어려운 한계점에 부딪치게 된다(Danes, 1974:144).

dynamism:CD)¹⁾으로 측정하였다. 즉 그는 Mathesius의 FSP 원리를 CD의 정도로 설명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다. 언어의 전달과정은 정태적이 아니고 동태적이란 생각에서 CD이론이 전개된다. 문장 내에서 CD가 가장 낮은 요소가 주제이며, 가장 높은 요소가 제술이다. 그리고 CD가 가장 높은 요소는 문장의 핵심부가 되며, 청자의 마음에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정보를 담은 내용이 된다(Firbas, 1964:270; 1971:92, 240). 그 밖에 Firbas는 문장내의 주제와 제술 사이에 나타나는 동사구를 전이(transition)²⁾라 부른다.

Mathesius와 Firbas의 초기 이론을 기초로 하여 어순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Danes는 발화 내의 의미구조, 문법구조, 전달 행위시의 의미 및 문법구조내의 어순을 분석하고 있다. Danes(1964:225)는 문장 구조 관계에 기초한 의미구조(semantic structure)의 단계, 문형을 중심 개념으로하는 문법구조(grammatical structure)의 단계, 그리고 전달 행위시 의미 및 문법 구조의 기능을 이해하게 하는 발화조직(organization of utterance)의 단계 등의 세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Danes(1967:506)는 이 세 단계가 일치하면 중립 어순이 되지만, 서로 불일치하면 도치, 문역양, 관사, 불변화사, 어휘적 수단, 명시적 문법구조 또는 다른 문형의 선정 등에 의존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유형 이외에도 목적어가 주제의 성질을 가진 경우 수동문으로 바뀌는 예를 보자.

- (1) a. John hates Mary.
b. Mary is hated by Jonn.

Danes(1967:507)에 의하면 (1a)의 수동문인 (1b)에서는 주제가 Mary이고 제술이 'the hatred of John for her'가 되는 데 이 순서는 적절한 문법구조에 해당한다. 위의 능동문과 수동문을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수준과 관련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
- 2) Firbas(1965:171)는 문장 내의 동사구인 전이는 CD의 정도가 주제보다는 높으며, 제술보다는 낮다고 한다. 한편 Firbas의 스승인 Mathesius는 전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Danes 또한 전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T와 R은 각각 주제(theme)와 제술(rheme)을 나타낸다.

	능동(Active)			수동(Passive)		
(1) 문법구조	S	V	O	S	Vpass	O
(2) 의미구조	Ag(ent)	Ac(tion)	G(oal)	G	Ac	Ag
(3) 발화조직 ⁽³⁾	T	R		T	R	

위의 세 단계를 보면 능동, 수동에 따른 어순변화에 따라서 의미구조는 변화하지만 문법구조와 발화조직, 즉 FSP는 변하지 않으므로 주제와 제술은 단지 표면에 나타난 어순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Danes(1968:55-64)는 발화현상을 위에서 논한 세 가지 단계로 일반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반화가 FSP이론 연구의 대상이 된 유형들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위의 세 가지 단계는 의미문형(Semantic Sentence Pattern:SSP), 문법문형(Grammatical Sentence Pattern:GSP), FSP 또는 복합문형(Complex Sentence Pattern:CSP)으로 재정립 되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Danes(1968:63)가 제시하는 다음 예문을 보자.

- (2) a. The dog bit the man.
b. The man was bitten by the dog.

위의 두 문장은 Danes의 문법 및 의미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의미를 가진 요소들의 순서 차이이지만, 문장의 GSP와 FSP(또는 CSP)의 관계 구조에서 서로 다른 기능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Danes(1968:65)는 그 차이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2') a. N1 VF N2(GSP) / Actor — Action — Patient(SSP)
b. N2 VFpass[by N1](GSP)/Patient — Action[-Actor] (SSP)

여기에서 CSP를 덧붙이면 주제 - 제술이 된다. (2'b)에서 [by N actor]는 의무적이 아니라 수의적 요소인데, 생략될 때는 행위자(actor)가 격하되어 배

4) 문장의 정보구조 관점에서 전달 행위시 어떤 정보는 다른 정보보다 중요하다. 청자에게 정보가치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 정보가 배경정보이며, 새롭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가 전경(foreground)정보이다. 가령, 'As I was coming to school this morning, I saw accident'에서 앞에 나타난 종속절은 배경정보, 뒤에 나타난 주절은 전경정보이다. 이처럼 전경정보는 문의 주절에 포함되며 배경정보를 가진 절 뒤에 나타난다.

경(background)⁴⁾정보가 되며, 표면화되면 행위(action)를 나타내는 목표(goal)⁵⁾가 된다. 이처럼 타동사의 수동화 현상은 행위자가 주변적 요소가 되며, 목표격을 가진 행위는 전경(foreground)에 남게 된다고 Danes(1968:65)는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능동문과 수동문에서 화자의 관심도가 다른 사실은 이들을 유도해내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 쉬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 a. Jones hit Smith with a fast ball.
b. Smith was hit with a fast ball.

Danes(1970:134)에 의하면 야구 게임의 논의에서 (3a)는 Jones가 무엇을 했는가에 주로 관심이 있을 때 쓰이며, (3b)는 Smith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는 왜 그가 병원에 갔는지를 논의할 때 쓰이는 표현이다.

이상에서 볼 때 FSP는 한 문장을 실제 전달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조직화 하는데 이용하는 한 원리가 된다. 즉, FSP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순간에 의미와 문법 구조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FSP원리는 프라그학과 학자들이 주로 연구한 체코어 어순에 관한 주요원리이다. 체코어 어순은 기지에서 미지로 배열된다. 즉, 주제가 제술에 선행한다.

Vachek(1966:91)에 의하면 영어에 있어서 FSP원리는 이차적인 것이며 일차적인 것은 문법원리와 어떤 요소들의 응집원리라고 한다. 따라서 영어는 주제와 문법주어가 다를 경우, 주제를 제술 앞에 두려는 FSP원리와 문법주어를 맨 먼저 두려는 문법적 어순원칙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충돌을 화해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수동태이다. Vachek(1966:92)의 설명을 보자.

While in Czech (and other Slavic languages) the subject still denotes, prevailingly, an agent, in English its function has mostly been changed into that of implementing the theme of the sentence utterance.

5) 동작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사물을 일컫는 데, 제 2장에서 언급된 피동자(Patient)와 같은 의미이다. 여기서는 그 용어 그대로 '목표'로 번역한다.

위의 인용문은 Slavic 언어에서 수동이 꺼려지는 이유, 즉 수동문에서 주어는 더 이상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임과 영어에서 수동이 많이 쓰이는 이유, 즉 수동문은 주제가 주어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임을 동시에 설명해 준다. 따라서 수동문은 영어에서 주제 - 제술의 순서를 재수립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3. 체계문법에서의 수동

3.1 언어의 기능과 주어의 종류

Halliday는 프라그학파의 학자들을 좇아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접근 방법을 제창한다. Halliday(1985, xiii-xiv)는 그의 문법의 개념적 틀은 형식이 아니라 기능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서로 분명히 구분되면서도 밀접히 연관되는 다음 세 가지, 즉 (1) 텍스트, (2) 체계, (3) 언어구조의 요소의 해석에 있어서 기능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기능문법은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기능적이다. 문어든 구어든 모든 텍스트는 어떤 사용의 환경 속에서 전개된다.

(2) 언어에 있어서 의미의 중심이 되는 구성성분은 기능적 구성성분이다. 모든 언어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 즉, 관념적(ideational) 의미와 대인적

(interpersonal) 의미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다 제 3의 구성성분인 텍스트적(textual) 기능이 덧붙여져 앞의 두 구성성분에 적절성을 부여하게 된다.

(3) 어떤 언어의 모든 요소는 전체적 언어체계 안에서의 기능에 의하여 설명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능문법은 모든 언어단위(절, 구 등)를 기능의 유기적 형상으로 구성한다. 바꾸어 말하면, 각 부분은 전체에 대하여 기능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Halliday(1970)는 문법적으로 적절한 언어의 세 가지 기능을 구분짓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관념적 기능

언어는 내용 즉 말할이의 실세계 경험과 의식의 내면세계 등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데, 이를 우리는 관념적 기능이라 부른다. 이 기능을 표현하기 위하여

언어는 경험에 구조를 부여하며 우리들이 사물을 보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대인적 기능

언어는 인간 상호간의 사회적 관계를 수립,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데, 이를 우리는 대인적 기능이라 부른다. 이 기능은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간의 차이를 가져오며 이 기능을 통하여 사회적 그룹이 경계지어 지고 개인은 주체화된다.

(3) 텍스트적 기능

언어는 사용되는 상황의 특징과 연계를 맺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우리는 텍스트적 기능이라 부른다. 이 기능은 화자/작자에게 텍스트, 즉 상황에 맞는 담화의 응집관계를 수립할 수 있게 해주며 청자/독자에게 텍스트와 비텍스트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이상의 세 기능 간의 상호 관련성을 Halliday(1977:60)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If the ideational component is language as reflection (the speaker as observer of reality), and the interpersonal component is language as action (the speaker as intruder in reality), the textual component is language as relevance (the speaker as relating to the portion of reality that constitutes the speech situation, the context within which meanings are being exchanged).

그리고 위의 세 기능은 각각 Halliday(1985)가 구분하고 있는 세 종류의 질, 즉 (1) 표상(representation)으로서의 질, (2) 교환(exchange)으로서의 질, (3) 메세지(message)로서의 질에서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체계문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문법분석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여겨져 오고 있으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주어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지어 문법 설명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Halliday(1985:33-34)가 구분하는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주어는 다음과 같다.

(1) 심리주어는 '메세지의 관심이 되는것'을 의미한다. '심리적'이라 불리

는 이유는 화자가 절을 만들려고 할 때 우선 그의 마음 속에 떠오른 것이기 때문이다.

(2) 문법주어는 '서술화되는 대상'을 의미한다. '문법적'이라 불리는 이유는 주어와 술어의 구조는 순전히 형식적 문법관계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러가지 문법적 특징, 가령 주어가 되는 명사의 격이나 인칭과 수를 동사에 일치시키는 일 등을 결정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3) 논리주어는 '행위자'를 의미한다. '논리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용어가 17세기 이래 기호들간의 관계였던 문법적 관계에 대하여 사물간의 관계와 관련되는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에서 세 종류의 주어가 하는 기능을 보자.

- (4) a. The duke gave my aunt this teapot.
b. This teapot my aunt was given by the duke.

(4a)에서는 문두의 the duke가 심리주어, 문법주어, 논리주어 셋 모두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4b)에서는 심리주어는 this teapot가, 문법주어는 my aunt가, 그리고 논리주어는 the duke가 담당하고 있다.

Halliday는 심리주어, 문법주어, 논리주어가 제각기 다른 기능을 행하므로 그 각각의 기능에 맞는 용어를 부여하여, 심리주어는 주제(Theme)로, 문법주어는 주어(Subject)로, 그리고 논리주어는 행위자(Actor)로 칭한다. 이제 (4a-b)는 다음과 같이 (5a-b)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5) a.

the duke	gave	my aunt	this teapot
Theme			
Subject			
Actor			

b.

this teapot	my aunt was given by	the duke
Theme	Subject	Actor

이들 세 기능은 절 내에서 (5a)에서처럼 모두 겹쳐지기도 하고 (5b)에서처럼

럼 제각기 흩어지기도 한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이 들만 겹치는 경우도 있다.

(6) a.

my aunt	was given this teapot by	the duke
Theme Subject		Actor

b.

this teapot	the duke	gave to my aunt
Theme	Subject Actor	

c.

by	the duke	my aunt	was given this teapot
	Theme Actor	Subject	

이러한 주어의 세 기능적 개념의 의미는 절 내에서 제각기 다른 의미양식(mode of meaning)과 대응하고 있는 데, 이를 Halliday(1985:36-37)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주제(Theme)는 '메세지로서의 절' 내에서의 기능이다. 그것은 메세지가 관심을 가지는 것, 즉 말할이가 말하고자 하는 출발점이다.

(2) 주어(Subject)는 '교환으로서의 절' 내에서의 기능이다. 그것은 절의 문법성에 책임을 지는 요소이다.

(3) 행위자(Actor)는 '표상으로서의 절' 내에서의 기능이다. 그것은 과정(process)의 능동적 참여자, 즉 행위자이다.

위의 세 기능적 개념은 절 구조 속에서 구현되는 세 종류의 중요한 의미를 가리키며, 이러한 의미 각각은 어떤 기능의 형상에 의해 표현된다. 그러므로 주제(Theme), 주어(Subject), 행위자(Actor)는 하나 이상의 종류의 기능과 결합되어 의미있는 형상, 즉 구조(structure)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이런 기능에 붙여진 이름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 의미는 그것이 구조적으로 연관되는 다른 기능들과의 관련성에 있다. 예를 들어 '행위자'라는 기능은 '과정'(Process), '목표'(Goal) 등과 같은 동일 종류의 다른 표상 기능과의 관련에 의해서만이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Miss Muffet ran

away' 라는 절을 해석할 때 우리가 Miss muffed에 '행위자'의 이름을 부여한다면 이것이 의미있는 이유는 오로지 우리가 ran away에 '과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이렇게 하여 그들 사이의 관계를 지정할 수 있다. '행위자'와 '과정'이 하나의 의미있는 구조를 이루는 것과 같이 '주어'와 '주제'도 각기 다른 종류의 의미있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영어의 절은 앞서 보듯이 '표상으로서의 절', '교환으로서의 절', '메세지로서의 절' 등 세 가지 다른 의미양식을 가지며, 이들은 각각 다른 통사적 선택 영역, 즉 '타동성'(Transitivity), '법'(Mood), '주제'(Theme) 등의 체계로 구현된다. 영어 수동문은 이상의 세 가지 통사적 선택체계 중 특히 타동성체계와 주제체계와 밀접히 관련되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들 두 체계를 중심으로 영어 수동문을 논의하고자 한다.

3.2 타동성체계와 수동

타동성체계는 인지 내용 즉, 외계의 현상이건 감정, 사고, 지각 등의 내면현상이건 언어외적 경험에 대한 언어적 표상과 관련된 선택집합으로서 여러가지 다른 유형의 과정을 지정해 준다.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과정자체(the process itself), 참여자(participants), 환경(circumstances) 등의 세 잠재 요소가 있으며, 과정의 주요 유형으로는 물질(material)과정, 정신(mental)과정, 관계(relational)과정 등이 있다(Halliday, 1985:101-128). 이 가운데 수동과 가장 관련있는 과정은 물질 과정과 정신 과정이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자.

물질과정은 행동과정(process of doing)이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과정에는 필수적으로 행위자(Actor)라는 참여자가 있으며, 어떤 것에는 제 2의 참여자인 피동자(Patient)⁶⁾가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7) a. The lion sprang.
b. The lion caught the tourist.

(7a, b) 둘 다 사자의 행동을 내포하지만, (7a)에서는 그 행동이 사자에게 국한되어 있고, (7b)에서는 그 행동이 여행자에게 향하고 있거나 뻗혀 있다. 그

6) Halliday는 Patient 대신 Go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래서 (7a)의 동사 spring은 자동사(intransitive), (7b)의 동사 catch는 타동사(transitive)라고 불린다.

물질과정은 행동과정이므로 어떤 존재(entity)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어떤 다른 존재에게 '행해지는' 것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가 (여행자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여행자의 관점에서 보아 '여행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 났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다. 즉 후자의 경우 과정은 '행동'이 아니라 피동자에게 생긴 일, 즉 '사건'이다. 이처럼 물질 과정은 제 2의 참여자가 있는 경우 다음 (8a)처럼 능동문이 될 수도 있고, (8b)처럼 수동문이 될 수도 있다.

- (8) a. The lion caught the tourist.
b. The tourist was caught by the lion.

물질 과정이라고 반드시 구체적, 물리적 행동이나 사태일 필요는 없으며, 다음 예문에서처럼 추상적인 일이나 사건일 수도 있다.

- (9) a. The mayor resigned.
b. The mayor dissolved the committee.

이런 경우에도 예문 (7)에서처럼 '시장이 (위원회에)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며, 피동자가 있는 (9b)는 수동문의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

물질 과정이 구체적 행동을 나타낼 경우 참여자의 역할은 대체로 분명하게 구분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0) a. The boy kicked.
b. The boy was kicked.

(10a)의 문법주어 the boy는 분명히 행위자이며, (10b)의 문법주어 the boy는 분명히 피동자이다. 그러나 행위자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참여자의 의미역할이 행위자라기 보다는 피동자로 여겨진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1) The tourist collapsed.

비록 능동형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지만 (11)은 행동이라기 보다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여행자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여행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로 해석함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추상적 과정의 경우 참여자의 의미역할 구분은 더욱 더 어려워진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2) a. The two schools combined.
b. The two schools were combined.

(12a)에서는 능동형의 동사가 쓰였고, (12b)에서는 수동형의 동사가 쓰였지만, 두 문장의 의미 차이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어떤 차이가 있다면 수동문의 경우에는 누구에 의하여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명시적 행위자를 조사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정신과정은 느끼고, 생각하고, 지각하는 것 등의 감각과정을 의미한다. 정신과정에는 감각자(Senser)와 현상(Phenomenon)으로 일컬어지는 두 참여자가 있는데, 감각자는 느끼고, 생각하고, 보는, 의식있는 존재를 의미하며, 현상은 감각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과정 절이 물질과정 절과 다른 일반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감각자이전 현상이건 문법주어가 될 수 있으며, 현상이 문법주어가 되는 경우에도 능동형의 동사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3) a. Mary liked the gift.
b. The gift pleased Mary.

(13a)와 (13b)에서 감각자 Mary와 현상 the gift의 순서가 서로 바뀌었고 의미상으로도 능동문과 수동문의 짝처럼 보이지만 (13b)의 동사형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다. 이와 같이 서로 쌍을 이루는 동사가 정신과정 절에 많이 있는데, Halliday(1985:110)는 이들을 'please'형 동사와 'like'형 동사라고 하면서 다음의 보기를 들고 있다.

- (14) a. I like it. It pleases me.
b. I fear it. It frightens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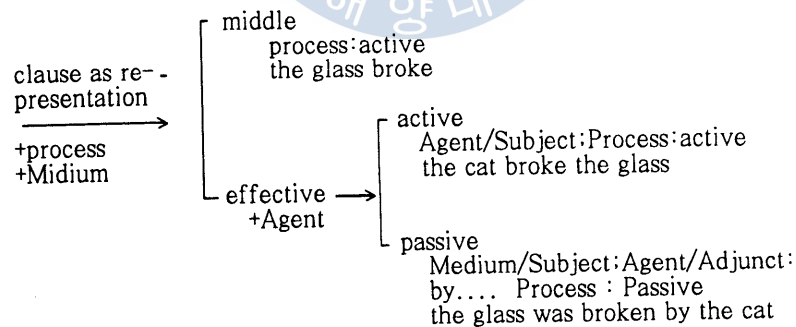
- c. I wonder at it. It amazes me.
- d. I don't understand it. It puzzles me.
- e. I enjoy it. It delights me.
- f. I forget it. It escapes me.
- g. I notice it. It strikes me.
- h. I believe it. It convinces me.
- i. I admire it. It impresses me.
- j. I mind it. It upsets me.

한가지 특기할 사실은 모든 정신과정 절에는 감각자와 현상 둘 다 잠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현상없이 감각자만 나타나는 절이 많이 있으며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다음과 같은 'please'형 동사의 수동문이다.

(15) She was pleased/delighted/worried/puzzled/impressed

이제 타동성체계 내에서 수동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Halliday(1985:151)가 제시하는 다음의 도표를 통하여 알아보자.

<도표 1> 태의 체계⁷⁾



위의 도표는 이렇게 해석된다. 행위자성(agency) 자질이 없는 절은 능동태도 수동태도 아닌 중간태(middle voice)이다. 행위자성 자질이 있는 절은 능동

7) 위 도표에 쓰인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 x : 'x is inserted'
- (2) a/b : 'a and b are conflated'
- (3) m:n : 'm is further specified as n'

태와 수동태 둘 다 가능한 절이다. 능동태와 수동태가 둘 다 가능한 절의 경우 행위자(Agent)와 주어가 결합되어 나타나면 능동태가 되고, 매개자(Medium)⁸⁾와 주어가 결합되어 나타나면 수동태가 된다.

능동, 수동 둘 모두 가능한 절은 엄밀히 말하면 구조적 기능인 행위자라기 보다는 행위자성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함이 정확한데, 다음 예문 (16b)에서 보듯이 행위자는 없으나 행위자성 자질은 암시(implicit)되기 때문이다.

(16) a. The glass broke.

b. The glass was broken.

행위자성 자질이 (16a)에는 없으나 (16b)에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 의하여?(who by?)'라는 질문이 (16b)에만 가능하며, (16a)는 하나의 참여자만 있는 경우이다.

Halliday에 의하면 능동, 수동 둘 모두 가능한 절의 경우 능동 대신 수동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매개자를 주어로 삼아서 무표주체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수동문 (16b)의 경우 말할이가 the glass에 관하여 얘기하기 위해서이다. (2) 행위자를 (i) 문미에 둬으로써 'late news'를 만들거나 (가령, 범인은 고양이라고 말할 경우) (ii) 없애버림으로써 암시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17) a. The glass was broken.

b. The glass was broken by the cat.

수동문 (17a)는 소위 무주체 수동문인데, 행위자를 없애버림으로써 화자/작자는 청자/독자에게 출처를 찾도록 내버려 둔다. 구어체 영어의 경우 거의 대부분

- 8)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핵심이 되는 하나의 참여자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참여자가 바로 매개자이다. 즉 매개자는 모든 과정에 필수적인 참여자이다. 영어의 가장 보편적인 과정유형은 (1) 참여자가 매개자 혼자 뿐인 경우, 즉 '매개자 + 과정'의 경우와 (2) 매개자 이외에 외부원인자(external causer)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참여자인 행위자가 있는 경우, 즉 '행위자 + 매개자 + 과정'의 경우이다. 이들의 보기는 다음과 같다.

(1) 매개자 + 과정
the glass broke
the baby sat up
the boy ran

(2) 행위자 + 매개자 + 과정
the heat broke the glass
Jane sat the baby up
the lion chased the baby

본의 수동문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 수동문 (17b)는 행위자를 문미에 둠으로써 행위자를 무표의 정보초점⁹⁾으로 만든다.

이제 타동성체계에서 다루어지는 수동문의 유형을 보자. 행위자와 매개자 이외에 주어가 될 수 있는 참여자로 수혜자(Beneficiary)와 범위(Range)가 있다. Halliday는 이들을 '참' 수동문('true' passive)과 구분하여 수혜자 수동문(Beneficiary-passive)과 범위수동문(Range-passive)으로 2부른다. 이들의 유형을 다음 예문에서 보자.

(18) 'true' passive: effective; Medium/Subject; Agent: by...

the glass Mary	was was	broken upset	by the cat by the news
Medium	Process		Agent

(19) Beneficiary-passive: effective; Beneficiary/Subject;
Agent: by...

my aunt	was	given	this teapot	by the duke
Beneficiary	Process		Medium	Agent

(20) Range-passive: middle(medio-passive); Range/Subject;
Medium: by...

songs the music	were was	sung enjoyed	by the choir by the audience
Range	Process		Medium

다음으로 전치사의 보어 역할을 하는 간접참여자가 있는데 이들 중 몇몇이 잠재(potential)주어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은 (21)와 같은 처소격 수동문(Location-passive), (22)와 같은 양태수동문(Manner-passive)을 만든다.

9) 정보초점, 즉 신정보의 무표위치는 문미가 된다. 다음의 주제체계와 수동(3.2.3)을 참고할 것.

(21) Location-passive:middle(medio-passive):Location/

Subject:Medium:by...

the bed	hadn't	been slept	in	by anyone
Location	Process			Medium

(22) Manner-passive:middle(medio-passive):Manner/Subje

ct: Medium:by...

this pen	's never	been written	with	by anyone
Manner	Process			Medium

장소격 수동문이나 양태격 수동문은 대개 중간 수동문이다. 행위자가 없기 때문에 유효절이 아니라 중간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do away with, look up to 등과 같은 관용적인 구동사(phrasal verb)들은 'look at the sky', 'wait for the boat'의 예에서 처럼 전치사구가 사실상 하나의 참여자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종종 '참' 수동문으로 분류된다.

(23) 'true' passive:effective:Medium/Subject:Agent:by...

it	's	been done	away with	by the government
Medium	Process			Agent

3.3 주제체계와 수동

주제체계는 절의 정보구조, 메세지의 구성요소로서의 자격, 담화에서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의 관계 등에 관심이 있으며, 또한 의사소통 행위속으로의 절의 내적 조직에도 관심이 있다.

절의 주제체계는 주제구조(thematic structure)와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로 구성된다. 주제구조에는 앞 절 2에서 논의한 두 주요 구성요소인 주제와 제술의 개념이 포함된다. Halliday는 주제를 절의 첫 위치에 오는 요소

로 정의한다. 다음 문장을 보자.

(24) a. John saw the play yesterday.

b. The play John saw yesterday.

예문 (24)에서 문두에 오는 밑줄친 부분이 각 문의 주제이며 나머지 부분이 제술이 된다. 서술문의 경우, 문법주어가 무표주제가 되며 문법주어로는 대용어가 빈번히 쓰인다. 그러나 주제의 선택은 절에서 의미있는 선택권이므로 화자는 (24a)의 무표주제 대신 (24b)와 같은 유표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24b)는 그 뒤에 'but I don't think he's seen the film'이 부연될 수 있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주제 선택이다.

정보구조는 주제구조와는 반대로 절과 관련하여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성조군(tone group)과 관련하여 정의된다. 구어체(spoken)영어는 일련의 성조군으로 구성되며, 그 하나 하나가 정보단위(information unit)가 된다. 각각의 정보단위 내에서 한 부분이 음높이(pitch)상의 중요한 변화에 의해 두드러지는데 이부분을 성조핵(nucleus or tonic)이라 부르며 정보초점(information focus), 즉 신정보를 나타낸다.

신정보에는 (1) 이전에 언급되지 않은 것, (2) 예기치 않은 것, (3) 암시된(implied) 것과 대조되는 것 등이 속한다. 성조핵의 무표위치, 즉 신정보의 무표위치는 정보단위의 끝이다. 성조핵은 항상 성조군의 마지막 내용어(content word)에 오는 것은 아니다. 화자가 정보단위의 어떤 부분을 대조적으로 두드러지게 하고 싶으면 성조핵은 다른 위치로 옮겨질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25) a. // Jane goes shopping in town every FRIDAY //

b. // Jane goes shopping in TOWN every Friday //

c. // JANE goes shopping in town every Friday // ¹⁰⁾

(25a)의 성조핵은 문미에 왔으므로 무표초점(unmarked focus)이지만, (25b)나 (25c)에서는 다른 위치의 단어에 성조핵이 왔으므로 유표초점(marked focus)이다. (25b)는 'Where does Jane go shopping every Friday?'의 답변이 될 것이며, (25c)는 'Who goes shopping in town every

10) 대문자는 성조핵이 되는 단어이며 접사선은 성조군의 경계 표시임.

Friday?’의 답변이 될 것이다. 유표초점의 효과는 성조군, 즉 정보단위 내에서 특정 단어를 신정보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구정보로 표시해 주는 것이다.

구정보는 단지 이전에 언급된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구정보에는 (1) 이전에 언급된 것, (2) 상황속에 있는 어떤 것, (3) 상황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보, (4) 화자가 당연하다고 여겨 청자도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주제구조의 주제와 제술, 그리고 정보구조의 신정보와 구정보라는 서로 독립된 선택 개념이 주제체계 내에서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Halliday(1979: 68)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he theme is speaker-oriented: it is the speaker’s signal of concern, what it is that he is on about.... The new is hearer-oriented (though still, of course, selected by the speaker): it is the speaker’s presentation of information as in part already recoverable to the hearer (the given) and in part not recoverable (the new).”

주제는 화자 지향적이어서 그의 관심사, 즉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어 준다. 한편 신정보는 비록 화자에 의하여 선택되어진 것이지만 청자 지향적이다. 그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제시할 때, 일부분은 청자가 복원할 수 있는 구정보로 제시하며, 일부분은 복원할 수 없는 신정보로 제시한다. 따라서 신정보는 청자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결 론

체계문법은 타동성체계, 범체계, 주제체계 등의 세 가지 다른 통사적 선택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들 체계에 의하여 절의 세 의미양식인 표상으로서의 절, 교환으로서의 절, 메세지로서의 절 등이 기능적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이들은 언어의 세 기능 및 주어의 세 종류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2〉 절의 의미/기능구조와 통사적 선택체계

절의 의미/기능구조	통사적 선택체계	언어의 세 기능	세 종류의 주어
표상으로서의 절	타동성 체계	관념적 기능	행위자
교환으로서의 절	법체계	대인적 기능	주어
메세지로서의 절	주제체계	텍스트적 기능	주제

이제 타동성체계의 주제체계의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를 다음 예문을 통하여 논의해 보자.

- (26) a. // My grandfather sold these HOUSES //
- b. // These HOUSES // my grandfather SOLD //
- c. // My GRANDFATHER sold these houses //
- d. // These houses were sold by my GRANDFATHER //

(26a)는 무표주제, 무표초점, 그리고 무표태(즉, 능동태)이다. 이에 반해 (26b), (26c), (26d)는 각각 유표주제, 유표초점, 유표태(즉, 수동태)를 가지고 있다. (26b)의 구조는 houses를 주제로 그리고 sold를 무표의 정보초점으로 삼기 위해 생긴 구조이며 (26c)에서는 유표초점을 사용하여 말할이는 주제인 my grandfather를 신정보로 선택할 수 있다. (26d)의 수동문은 my grandfather를 무표초점으로 정하는 한편 houses를 무표주제로 삼을 수 있게 해준다. Halliday(1967: 216)는 (26d)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the actor is focal and the goal thematic and the effect is to 'emphasize' the actor as the point of new information and also to 'emphasize' the goal as what the message is ab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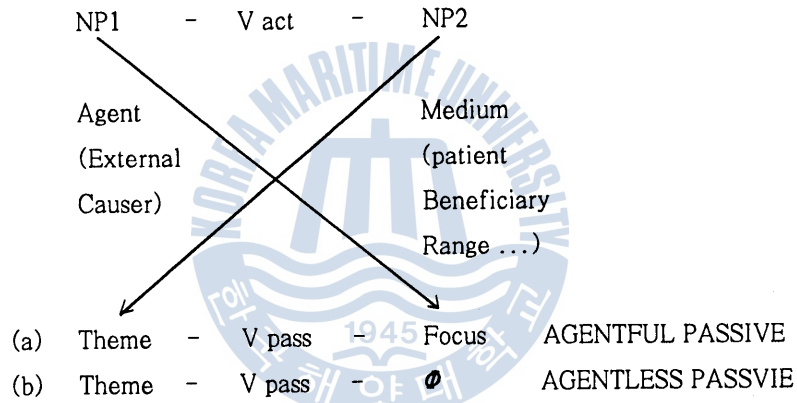
Halliday(1967:218)는 위의 설명을 좀 더 일반화하여 영어 수동문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 goal to be thematic while remaining, qua theme, unmarked -and the actor either to be absent or, if present, to carry the unmarked

focus

결론적으로 수동를 사용하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은 (1) 행위자의 초점화(즉 행위자 표시가 있는 수동문의 경우) (2) 행위자의 삭제(즉 무주체 수동문의 경우) (3) 매개자의 주제화(즉 모든 수동문의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3〉 수동의 기능



참 고 문 헌

- 강명렬. 1990. FSP와 영문의 Thematic Progression. 동아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논문.
- 차진순. 1987. 체계언어학의 이론적 개념(번역). 반석출판사.
- Danes, F. 1964. A three-level approach to syntax. *Travaux Linguistiques de Prague* 1. 225-240.
- _____. 1967. Order of elements and sentence intonation. In *To Honor of Roman Jakobson*. 499-512.
- _____. 1968. Some thoughts on the semantic structure of the sentence. *Lingua* 21. 55-69.
- _____. 1970. On instance of P. S. methodology: Functional analysis of utterance and text. In *Theory and Method in Linguistics*. Edited by P. Garvin. The Hague: Mouton. 132-146.
- _____. 1974.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nd the Organization of the Text. *Papers on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106-128.
- Firbas, J. 1964. On defining the theme in Functional Sentence Analysis. *Travaux Linguistiques de Prague* 1. 267-280.
- _____. 1965. A note on transition proper in Functional Sentence Analysis. *Philologica Pragensia* 8. 170-176.
- _____. 1971. On concept of communicative dynamism in FSP. *Sbornik Praci Filosoficke Fakulty Brnenske University* 129. 135-144.
- Granger, S. 1983. *The BE + PAST PARTICIPLE Construction in Spoken English*. North-Holland: Elsevier Science Pubs. B. V.
- Halliday, M. A. K. 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2. *Journal of Linguistics* 3.2. 199-244.
- _____. 1968.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3. *Journal of Linguistics* 4. 179-215.
- _____. 1970. *A Course in Spoken English: Intonation*. Oxford: OUP.
- _____. 1979. Modes of meaning and modes of expression: Types of grammatical structure, and their determination by different

- semantic functions. In *Function and Context in Linguistic Analysis*. Edited by D.J. Allerton, E. Carney & D. Holdcroft. Cambridge: CUP. 57-79.
- _____. 1985.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Edward Arnold.
- Mathesius, V. 1975. *A Functional Analysis of Present-Day English on a General Linguistic Basis*. Edited by J. Vachek. Prague: MIT Press.
- _____. 1929/1983. *Functional Linguistics*. *Praguiana*. Translated and edited by J. Vachek. 121-142.
- Vachek, J. 1966. *The Linguistic School of Prague*. Bloomington: IUP.
- Weil, U. 1877/1978. *De l'ordre des mots dans les langues anciennes comparees aux langues modernes*. Paris. Translated by C. Super as: *The order of words in the ancient languages compared with that of the modern Language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 Co.

